

# 원희룡 장관 “국민고통 감안해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야”

## - 화물연대 현업복귀 촉구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(ICD)를 방문하여,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 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.
  - 의왕 ICD는 내륙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연대의 집단거부 운송 이후 매일 집회, 운행방해 시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.
- 이날 원 장관은 의왕 ICD의 물류 상황을 보고 받고,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.
  - 아울러, 화물연대의 의왕 ICD 출입구 봉쇄와 같은 운송방해 시도에 대해 경찰 측과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, 화물차주의 현업 복귀를 독려하며, 이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있고,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”며,
  - “국가경제를 불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”며, “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 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  - 또한 “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호 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,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”고 말하면서

- “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”한다고 밝혔다.

2022. 6. 14

국토교통부 대변인